

-방글 방글 방글라데시에서 띄우는 편지(2020년4월)- Thomas(도00),Julie(이00),Ezra(도0),Amy(도00)

'코로나 19'로 오늘도 치열하게 나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살아 계신 그분이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모두들 힘내시기를 바라며 외쳐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전국 봉쇄 조치'-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코로나 확진자는 7,103명이고 사망자는 163명(4월29일 현재)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억9천 명 정도의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인지라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위해 '전국 봉쇄 조치'와 같은 임시 공휴일 지정을 5월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 장례식에 10만 여명 인파 운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 이동을 통제하는 방글라데시에서 통제조치를 무시하고 무슬림 지도자 장례식에 무려 10만 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심지어 장례식 참석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완전히 무시됐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것: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식료품 공급도 끊긴 지역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봉쇄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물건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빈민 확산으로 인해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엔 의류 봉제공장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공장으로부터 일자리를 잃을까봐 봉쇄를 뚫고 리샤와 배를 타고, 누구는 걸어서 공장으로 노동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당장 굶어 죽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라마단 금식 달 시작: 라마단 금식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이프타르(라마다 기간 일몰 직후 금식을 마치고 먹는 첫 번째 식사) 항목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호텔과 식당은 오후 4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보통 라마단 금식 기간에 일몰 직후 금식을 마치고 먹는 이프타르를 파는 호텔과 식당의 매출은 평상시 보다 몇 배가 더 높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 가운데서도 이프타르를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소식: 도움, 예봄이는 학교가 휴교하여 집에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는 12학년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고 있고 6월에 졸업하여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모든 항공편이 폐쇄되어 지금으로는 한국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사역과 기타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족이 그 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이며 더 든든히 복음 앞에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 1.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 되며,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 2.방글라데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로 인해 새로워지며 온전한 평안을 누리도록...
- 3.방글라데시 생활 가운데 가족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 4.한국에 계신 부모님(어머님, 장모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도록
- 5.자녀들이 영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건강히 잘 자라고, 명철과 지혜가 풍성하도록..
- 6.이 나라 안의 이슬람, 힌두 문화를 잘 습득하여 눈물과 두 손 모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 7.더 많은 만남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만남 안에서 섬김이 풍성하도록, 또 그 가운데 사역의 정체성과 영역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 8.한국, 방글라데시와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